논어 7편 술이 18장 · 원문·풀이

葉公問孔子於子路，子路不對。子曰：「女奚不曰：『其爲人也，發憤忘食，樂以忘憂，不知老之將至云爾。』」

독음 · 섭공문공자어자로 자로부대 자왈 여해불왈 기위인야 발분망식 락이망우 부지로지장지운이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자는 자신을 분발하면 먹는 것도 잊고, 즐거워 근심을 잊으며, 늙어가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 설명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葉 고을이름 섭 섭 / 公 공변될 공 공 / 問 물을 문 문 / 孔 구멍 공 공

子 아들 자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路 길 로 로 / 不 아닐 불

對 마주볼 대 대 / 曰 가로 왈 / 女 계집 녀 여 / 奚 어찌 해 해

其 그 기 / 爲 할 위 / 人 사람 인 / 也 어조사 야

發 쏠 발 발 / 憤 결낼 분 분 / 忘 잊을 망 망 / 食 밥 식 식

樂 즐길 락 / 以 써 이 이 / 憂 근심 우 우 / 知 알 지

老 늙은이 로 로 / 之 갈 지 / 將 장차 장 장 / 至 이를 지 지

云 이를 운 운 / 爾 너 이 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